

## I. EU 확대 현황 및 전망

### □ 올해 5월 1일, 중.동구 10개국 EU가입

- 2004년 5월 1일 EU에 중.동구 10개국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총 25개 회원국으로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부상
  - EU 25개국 경제규모는 10.2조 유로(2004년 기준)로 여전히 미국보다는 작으나 인구수(4천5백만명)나 교역량(5.5조 유로, 역내.역외 포함)에서는 미국을 능가함

[신규회원국을 포함한 EU-25개국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이후
회원국	15개국	25개국
인구	3.8억명	4.5억명
면적	3,289천 m <sup>2</sup>	4,314천 m <sup>2</sup>
GDP	9.3조 유로	10.2조 유로
1인당 GDP	24,300 유로	22,200 유로
수출 <sup>*)</sup>	2.6조 유로	2.8조 유로
수입 <sup>*)</sup>	2.5조 유로	2.7조 유로

(자료원 : EUROSTAT)

<sup>\*)</sup> 역내.역외 포함

- 기존회원국 :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 신규회원국 :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 가입후보국 :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크로아티아

[EU의 출범과 확대 과정]

구분	연도	신규회원국
출범	1957년	독일, 프랑스, 이태리, 베네룩tm 3국 (6개국)
1차 확대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3개국)
2차 확대	1981년	그리스 (1개국)
3차 확대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2개국)
4차 확대	1995년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3개국)
5차 확대	2004년 5월	폴란드, 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10개국)
6차 확대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7차 확대	?	터키, 크로아티아 등

□ 2007년 이후 EU 추가 확대 전망

- 2007년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EU에 가입할 예정이며, 1999년에 EU 가입후보국 자격을 받은 터키는 2005년 8월부터 가입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협상 과정 중 대부분의 협상 분야(총 31개 분야)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터키의 EU가입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여, 12월 17일에 EU정상회담에서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승인,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음
- 2003년에 이미 EU 가입 신청을 한 크로아티아도 지난 6월에 공식적으로 EU 가입후보국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가입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음
  - 앞으로 마케도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들도 EU 가입 신청할 것으로 전망

## II. EU 확대 의미 및 영향

### 가. 긍정적 영향

#### □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부상

- EU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이 됨으로써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게 됨
  - EU-25 인구는 4억5천5백만명으로 7천6백만명이 증가되고, GDP는 10.2조 유로 규모로 늘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되며 이는 세계 총 GDP의 28%를 차지
  - 1인당 GDP는 24,300유로에서 22,200유로로 다소 하락
  - EU확대는 신규 회원국에 향후 5년간 연 1.3-2.1%, 기존 회원국에 0.7%의 GDP 증대효과를 가져올 전망(EU집행위 분석결과)
  - 기존 회원국-신규 회원국 상호간의 교역비중이 커 EU-25의 역외교역 규모는 1조 8,219억 유로로 EU-15의 1조 9,706억 유로보다 오히려 감소

#### <EU의 세계적 비중>

(단위: 백만명, 십억불)

구분	EU 25	미 국	일 본	세계 전체
인 구	454.3	285.9	127.3	6,100
GDP 규모	10,890	9,426	4,392	32,067
상품 수출	1,122	711	395	6,280
상품 수입	1,204	1,193	294	6,268

(자료원 : WTO, IMF)

주) EU 상품 수출.입: 기존 회원국은 역외교역만 포함

## □ 국제무대에서의 EU 영향력 높아짐

- 확대된 EU는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이 대폭 강화되어, 특히 신규 회원국인 동유럽 국가들은 정치.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기존 회원국인 서유럽국가들도 몇 년 전부터 잠재 성장시장인 동유럽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EU 확대를 적극 환영하면서 잇달아 동유럽으로 산업기지를 재배치하고 판매망을 확충하고 있음

### [EU 신규회원국 GDP 성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

국가	2003	2004	2005	2006
체크	3.1	3.8	3.8	4.0
에스토니아	5.1	5.9	6.0	6.2
사이프러스	2.0	3.5	3.9	4.2
라트비아	7.5	7.5	6.7	6.7
리투아니아	9.7	7.1	6.4	5.9
헝가리	3.0	3.9	3.7	3.8
몰타	0.2	1.0	1.5	1.8
폴란드	3.8	5.8	4.9	4.5
슬로베니아	2.5	4.0	3.6	3.8
슬로바키아	4.0	4.9	4.5	5.2

(자료원 : EU Commission, Economic Forecasts, Autumn 2004)

## □ EU 확대로 신규시장 기회 발생

- 확대가 가져오는 가장 큰 영향은 막대한 신시장 창출이며, 신규 회원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거의 전 소비재와 산업재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EU 25국 시장을 서로 원활히 연계시키기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이 유럽 전역에서 잇달아 추진되고 있음.

-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 기업이 신규회원국 시장에서 치열한데, 우리 기업들도 확대된 EU 시장에서 창출되는 마케팅 기회를 놓치지 말고 파악해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

## 나. 부정적 영향

### □ 회원국간 의견 수렴하기 어려워져

- 경제수준이 크게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으로 편입되면서 회원국간 의견차가 심해져 효율적 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확대이후 인건비가 낮은 신규회원국 노동자들이 서유럽으로 몰려들어 가뜩이나 높은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서유럽에 확산되어 EU 확대의 무조건적인 낙관을 경계하고 있음

### □ EU의 각종 규제로 EU시장 접근 힘들어져

- 반덤핑 규제, 원산지 규정 강화 등으로 한국산 전자제품, 철강제품 등은 타격을 입을 소지
- 중.동구 국가들의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철폐 및 축소

### Ⅲ. EU-25개국 경제현황 및 전망

#### 1. 경제동향 및 전망

##### □ 2003년 하반기부터 EU-25 경제 회복

- 2003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어 EU25의 금년도 GDP 성장률은 전년 1.0%보다 현저히 높은 2.5%를 시현할 것이나, 고유가 지속으로 내년에는 다시 후퇴, 2.3%(2005년)와 2.4%(2006년)를 시현할 전망
  - 실제로 금년의 2.5% 성장은 계속된 유로화 강세라는 제약여건 속에서 이뤄낸 것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늘어난 것임.
  - EU 내수보다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가 금년도 EU경제성장의 동인이 되고 있음

##### [ EU-25국 주요경제지표 성장률 ]

(단위 : 연간 실질성장률 %)

구분	2003	2004	2005	2006
GDP	1.0	2.5	2.3	2.4
민간소비	1.5	2.0	2.0	2.2
총투자	0.0	3.2	3.8	4.0
실업률	9.1	9.1	9.1	8.8
인플레이션율	1.9	2.2	2.1	1.9
상품 수출	1.5	7.4	6.8	6.3
상품 수입	3.0	7.4	7.0	6.8

(자료원 : EUROSTAT)

□ EU 경제 성장, 신규회원국이 주도하고 있음

- 올해 5월 1일부로 EU에 가입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4.7%에 달해 기존 EU 15개 회원국보다 2% 이상 높아, EU 전지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헝가리 등 중부유럽국가와 발틱3국 등 2004년 4.7%, 2005년 4.5% 달성할 전망
  - EU 가입후보국 자격이 있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 터키 또한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GDP 성장률 실적 및 전망 】

( 단위 : % )

국가명	2003	2004	2005	2006
사이프러스	2.0	3.5	3.9	4.2
체크	3.1	3.8	3.8	4.0
에스토니아	5.1	5.9	6.0	6.2
헝가리	3.0	3.9	3.7	3.8
라트비아	7.5	7.5	6.7	6.7
리투아니아	9.7	7.1	6.4	5.9
몰타	0.2	1.0	1.5	1.8
폴란드	3.8	5.8	4.9	4.5
슬로바키아	4.0	4.9	4.5	5.2
슬로베니아	2.5	4.0	3.6	3.8
신규회원10개국	4.1	4.7	4.5	4.6
기존회원15개국	0.9	2.3	2.2	2.3
EU-25개국	1.0	2.5	2.3	2.4
불가리아	4.3	5.5	6.0	4.5
루마니아	4.9	7.2	5.6	5.1
크로아티아	4.3	3.8	4.0	4.5
터키	5.8	8.5	5.0	5.3
가입후보4개국	4.8	6.3	5.1	4.9

주: 실질성장률, 경상가격 기준

□ EU확대 후, 신규회원국의 높은 경제성장 지속

- 신규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이 EU가입 후에도 기존회원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올 2/4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2.8%, 1.3%의 경제성장을 시현한 반면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등은 각각 6.1%, 5.4%, 7.3%의 경제성장을 기록.

[ EU 신규회원국 2003-2004년 각 분기별 GDP 성장률 ]

(단위 : %)

	2003	2004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체크	3.3	3.5	4.1	-
에스토니아	6.1	7.0	-	-
사이프러스	2.8	3.5	4.3	-
라트비아	7.5	8.8	7.7	-
리투아니아	11.5	7.1	7.3	6.0
몰타	2.1	2.3	-1.5	-
폴란드	4.7	6.9	6.1	-
슬로베니아	2.5	3.8	4.6	
슬로바키아	4.7	5.5	5.4	-
EU-25개국	1.2	1.7	2.4	2.1
EU-15개국	1.1	1.7	2.3	2.1

(자료원 : EUROSTAT) \*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교역 동향

□ 2004년 EU의 상품 수출입 예상보다 높아

- EU의 상품 수출은 2004년 중 기존의 EU집행위원회 전망과는 달

리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이미 상반기 중 2/4분기 수출이 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품 수출은 2003년의 1.5%보다 훨씬 높은 7.4%를 기록한 후 다시 6.8%(2005년), 6.3%(2006년)로 둔화될 전망이다.
- 상품수입 역시 수출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2003년에는 증가율이 3%(물량 기준)에 불과했으나 금년에는 7.4% 시현, 2005년에는 다시 낮아져 7%, 2006년 6.8%를 기록할 전망

[EU-25개국 수출입 증가율 현황 및 전망]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상품 수출	1.5	7.4	6.8	6.3
상품 수입	3.0	7.4	7.0	6.8

(자료원 : EUROSTAT)

□ 신규회원국의 EU수출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독일,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을 제외한 유로존 국가들은 EU 수출시장 점유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중 “수출부진국”은 그리스, 프랑스, 이태리와 핀란드
- 신규회원국들은 몰타와 사이프러스를 제외하고 EU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신규회원국 EU 수출입(역내.역외)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

	수출시장점유율		수입시장점유율	
	2003	2004(1-9)	2003	2004(1-9)
EU-25국	100.0	100.0	100.0	100.0
체크	1.56	1.77	1.67	1.83
에스토니아	0.14	0.16	0.21	0.24
사이프러스	0.01	0.02	0.13	0.13
라트비아	0.09	0.11	0.17	0.19
리투아니아	0.22	0.25	0.31	0.33
헝가리	1.38	1.46	1.56	1.63
몰타 <sup>*)</sup>	0.07	-	0.10	-
폴란드	1.73	2.01	2.23	2.43
슬로베니아	0.41	0.43	0.45	0.47
슬로바키아	0.70	0.74	0.73	0.79

(자료원 : EUROSTAT)

<sup>\*)</sup> 2004년 5월 이후의 몰타 수출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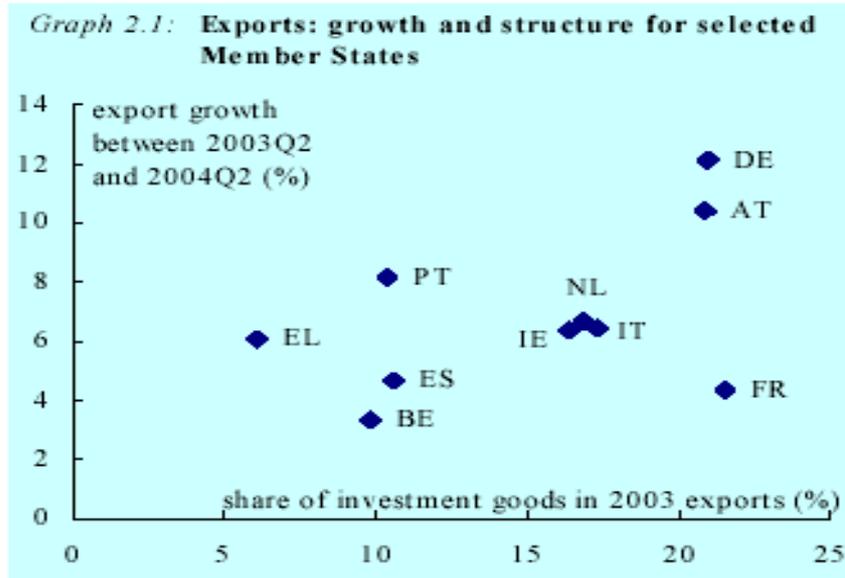
□ 유로화 강세는 EU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계속된 유로화 강세는 당초 예상보다 EU의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유럽 수출업체가 전문화 및 특화되어 있으며 유럽 수출업체들이 유로화 강세를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상당기간 지속될 요인으로 간주, 비가격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외부적인 요인으로 2003년 2분기부터 중국 경기 붐(boom), 미국과 일본에서의 장비투자 성장률이 10% 이상을 시현한 것이 수출증가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 유럽 수출산업이 이들 투자재 분야에서 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EU 주요국 수출 성장과 구조 현황 ]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 3.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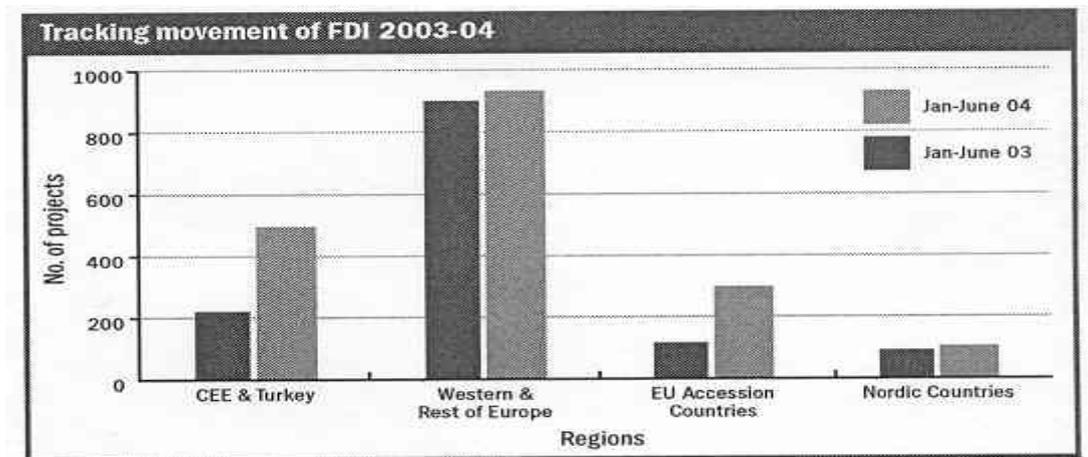
#### □ 유럽지역으로의 투자유입 회복

- 지난 3년간 주춤했던 유럽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는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반기 말 건수 기준 유럽에 대한 FDI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432건(2003년은 1126건)으로 집계
  - 특히 지난 5월 1일 EU 확대가 유럽 단일시장의 파이를 키워줌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진출이 활발해져 EU신규회원국인 체크,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FDI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 신규회원국 FDI 유치에 기존회원국을 앞지르기 시작

- EU 확대 이후 중부유럽 국가들이 유럽 역내의 신흥 생산 혹은 서비스(물류, IT 등) 기지로 전면 부상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대상국으로 인기가 높음
  - EU신규회원국들은 올 상반기 중 300건 이상의 FDI를 유치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임.
  - 슬로바키아의 FDI 유치건수가 네덜란드보다 많으며, 독일보다 헝가리가 많고, 체크, 폴란드 등도 스페인 보다 많으나 건수 면에서 신규회원국들이 아직 서유럽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2004 상반기 유럽의 FDI 유치 현황 ]



(자료원 : EIM(European Investment Monitor), Ernst&Young, 2004)

## IV. EU 확대 후 주요 신규회원국 동향

### [폴란드]

#### 1. EU 확대 후 경제 동향

##### 가. 경제 동향

###### □ EU가입에 대한 기대로 올 상반기 중 GDP 크게 성장

- 폴란드 경제는 2001-2002년의 경제 침체에서 지난해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4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6.5%의 GDP 성장을 시현
  - 2003년 3.8%, 2003년 4.7%의 GDP 성장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성장을 기록
- 경제성장 원동력은 안정적인 국내수요와 수출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상반기 중 국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EU가입에 대한 기대로 인한 경제 붐을 반영하고 있음

###### □ 2005-2006년에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전망

- EU 가입 전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국내 수요는 올 하반기에는 가라앉을 것이며, 그 결과로 2005년에는 4.9%, 2006년에는 4.5%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
  - 국내수요와 총 수출로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나. 기업투자 동향

### □ 폴란드 기업투자, 2003년 하반기부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

- 폴란드 내 기업투자는 지난 2년반동안 15% 이상 감소하였으나, 2003년 3/4분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함
  - 고정자본투자는 올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약 3.4%만 증가하였으며 2005-2006년 2년동안 서서히 회복
  - EU가입으로 인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안정된 기업 수익성 등으로 2006년쯤에 기업투자가 수출을 총 수요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대체할 전망

## 다. 물가동향

### □ 폴란드 물가, 올 4월부터 급격히 상승

- 폴란드 소비자 물가는 올 4월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폴란드 중앙은행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re inflation 와 인플레이션 전망 또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headline inflation이 이와 같이 상승한 것은 물가 상승 및 고유가와 EU가입으로 인한 간접세 부담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

[2004년 폴란드 각 월별 물가상승률]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0.5	0.1	0.4	0.7	1.1	0.7	-0.1	-0.3	0.3	0.6
전년동월대비	1.8	1.8	1.8	2.3	3.5	4.3	4.7	4.9	4.7	4.6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 물가 압력은 당분간 지속되다가 2006년에 안정화될 전망

- 고유가와 임금 상승으로 물가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headline inflation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식료품 가격 안정화 및 금융긴축정책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6년에 3.0%로 떨어질 전망

## 2. EU 확대 후 폴란드 수출입 동향

### 가. 최근 수출입 동향

□ 금년 들어 폴란드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대폭 증가

- 2004년 1-9월 중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9.2% 증가한 520억불, 수입은 31.6% 늘어난 633억불을 기록
- 수출 호조요인은 핵심시장인 EU로의 수출 호조(상반기 중 41.%증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들 수 있음.
  - 금년 상반기 중 폴란드의 명목임금은 5% 증가한 반면, 생산성은 1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 호조요인으로는 폴란드의 경기상승과 EU 가입효과(역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EU 자금지원에 의한 인프라 및 IT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EU 가입 이전 수출입 증가율이 가입 후 보다 높아

- EU 가입 이전 수출입 증가율이 이후 보다 높은 것은 가입 후 불

확실성에 따른 조기 선적과 가입 후의 물가상승 우려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앞당긴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EU 가입 전후 폴란드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4년 1-4월		2004년 5-9월		2004년 1-9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	22,911	48.6	29,111	32.6	52,022	39.2
수입	28,426	41.9	34,877	24.3	63,302	31.6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나. 주요 교역 파트너

□ EU확대 후 국별 수출입 중 EU의 비중 크게 확대

○ 폴란드가 지난 5월 1일부로 EU에 가입함으로써 무역전환효과 발생, 서유럽기업의 동진, 법제도의 조화 등의 요인으로 EU 역내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 국가와의 수출입 비중 70%이상 차지

○ 수출의 경우 10대 수출시장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2개국을 제외하면 모두 EU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EU 확대 효과로 2004년 1-8월간 30-60% 이상의 수출 증가율 기록

[폴란드의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 백만불, %)

국명	2003년 1-8월	2004년 1-8월	증감율	비고
독일	10,895,719	13,980,093	28.3	역내
프랑스	2,052,925	2,795,138	36.2	역내

이탈리아	1,813,726	2,793,552	54.0	역내
영국	1,644,581	2,391,936	45.4	역내
네덜란드	1,541,457	2,026,233	31.4	역내
체크	1,324,234	1,879,540	41.3	역내
러시아	950,495	1,612,998	69.7	역외
스웨덴	1,178,006	1,603,908	36.2	역내
벨기에	1,062,898	1,507,463	41.8	역내
우크라이나	907,557	1,227,524	35.3	역외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 수입 역시 최대수입국 독일을 비롯한 8개국이 모두 EU회원국이며, 비 EU국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음.

- 10대 수입국 중 유일한 비유럽 국가인 중국에서의 수입은 1-8월 중 36%가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음

- EU 국가에서의 수입은 같은 기간 중 평균 30% 이상 증가

#### [폴란드의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 백만불, %)

국명	2003년 1월-8월	2004년 1월-8월	증감율	비고
독일	10,496,258	13,511,853	28.7	역내
이탈리아	2,321,950	4,464,554	92.3	역내
러시아	3,405,639	3,981,532	16.9	역외
프랑스	3,040,381	3,942,976	29.7	역내
중국	1,725,432	2,339,359	35.6	역외
체크	1,459,347	2,008,263	37.6	역내
네덜란드	1,415,891	1,902,667	34.4	역내
영국	1,591,770	1,852,858	16.4	역내
스웨덴	1,131,000	1,568,462	38.7	역내
스페인	1,089,436	1,416,633	30.0	역내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 3. EU 확대 후 폴란드의 투자유치 현황

#### □ EU 가입 이후 외국인기업들의 투자 급증

- 폴란드의 EU가입을 계기로 서유럽과 미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폴란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임.
  - 신규진출을 추진 중인 외국기업들이 많은 것은 물론 기존출기업의 증설과 여타 분야로의 투자도 활발한 모습
- 폴란드 투자유치청(Polish Agency for Information & Foreign Investment)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폴란드는 30억유로(약 37억불)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 투자액이 전년동기 대비 5억유로 늘어났음.
  -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금융연구소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폴란드가 80억불의 FDI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지난 2000년 폴란드의 FDI 유치가 100억불을 돌파해 피크에 달한 후 FDI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2003년 소폭 증가), 금년 들어 투자유치가 크게 회복되어 EU 가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단, 투자유치를 위한 여타 중동구 국가들과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폴란드의 연도별 FDI 유입 추세]

(단위 : 백만불)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1996	5,197	1997	5,678	1998	9,574
1999	7,891	2000	10,601	2001	7,119
2002	6,064	2003	6,420		

(자료원 : 폴란드 투자유치청)

## □ 특히 서유럽 기업의 폴란드 진출이 두드러져

- 폴란드 투자 추진 기업의 국적을 보면, 서유럽 기업이 최다를 차지하는데, 이는 EU 가입시 예견되었던 서유럽 제조업체의 ‘東進’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기업의 투자도 활발하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기업에 비해 동 지역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일본 기업의 움직임이 두드러짐.
  -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류와 가전제품(백색가전 및 소형가전) 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 및 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유치 확대 전망

- 외국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이 확대되는 이유로는 다음 4가지가 제시되고 있음 :
  - 1) EU가입을 통해 폴란드에 대한 신뢰도 상승,
  - 2) 낮은 생산비용 활용,
  - 3) 숙련 노동력 확보용이
  - 4) 헝가리, 체크 등 다른 중동구 국가에 비해 상대적인 거대시장 (인구 4천만명에 육박)

## 4. EU 확대 후 폴란드 동향

### 가. 일반 동향

#### □ EU 가입 직전 폴란드와 폴란드인들의 기대와 우려 교차

- EU 가입으로 경제 부흥, 외국인투자 유치, 막대한 EU 자금 유입, 대 EU수출 확대 등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으나, 가입을 위한 정부의 준비 부족, 불확실성 증대 및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도 높았음
  - 폴란드 국민의 EU 가입에 대한 지지율도 가입을 몇 달 앞두고부터는 지속 하락하였으며, 특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 □ 현재 EU 체제로의 전환 차분히 진행되고 있음

- EU 진입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일부 분야의 혼란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큰 혼란이 없었음
  - 폴란드 유럽업무장관은 일부 물품의 가격이 가입 직후 올랐으나, 폴란드로 EU 물품의 쇄도나 폴란드 노동력의 EU 국가로의 이탈주와 같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 당초 우려했던 노동자 쇄도 현상은 없었음

- EU 확대 이전 독일, 오스트리아 등 기존회원국에 의해 제기되었던 노동시장 보호문제는 걱정과는 달리, 폴란드나 여타 중동구 신규회원국으로부터의 노동자 쇄도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음.

## □ EU 가입으로 인하여 농민이 최대 수혜자

- EU 가입 이전에 가입의 결과에 대해 가장 두려워했던 농업 경영자들은 “직접 보조금” 교부와 함께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점차 풍요롭게 개선되고 있으며 “유효수요”의 유발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올해 폴란드 농민 소득 전년대비 73.5% 증가할 전망, EU25개국의 평균인 3.3%를 크게 웃돌고 있음.

## 나.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

### □ EU 가입 후 물가 크게 상승

- EU 가입 직전 물가상승 우려로 판매 붐과 일부 품목의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실제 5월 이후 경기 호조와 유가 급등까지 겹쳐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폴란드 통화정책위원회(RPP)가 6-8월 중 금리를 3차례나 인상한 바 있음.
- 그러나 7월 들어 물가 상승세는 주춤하여 이는 현지화(주위티 / PLN) 강세와 EU “가입 충격”의 종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 업계가 받는 영향

### □ 폴란드 업계, EU 체제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어

- KPMG 컨설팅에 의하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폴란드의 EU 가입을 긍정적인 발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업계에서는 여타 EU 국가들로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제한 축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효과는 대형 업체들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감지하고 있는 상황임. 업계는 일반 대중이 더욱 부유해져 구매력이 증가할 것 이란 희망에 부풀어 있음.

## □ EU 가입으로 서유럽시장 진출 확대

- EU 가입은 유럽 공동시장으로의 접근에 있어 잔존하고 있던 장벽들의 철폐를 의미함 : EU 확대를 통해 대 EU교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1-8월 중 폴란드의 대 EU 최대 시장인 독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5% 이상 증가

- 특히, 폴란드의 경쟁력이 있는 식품, 농축산물, 가구 등의 서유럽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됨.

- 금년 8월까지 폴란드는 EU로 21억 유로 상당의 식품을 수출했으며, 이를 통해 사상 최대인 5억 유로의 흑자를 거두었으며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EU회원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

## □ 생산 및 아웃소싱 기지로 각광받고 있음

- 폴란드뿐만 아니라 헝가리 등 중.동구 국가의 EU 가입을 계기로 중동유럽이 새로운 생산 및 아웃소싱 기지로 각광받고 있음.

- 이에 따른 서구 우수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은 폴란드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

\* 폴란드의 생산/아웃소싱 기지로서 이점

a) 저코스트 국가(LCC, low-cost countries)로 임금 등 낮은

생산비용: 폴란드의 생산비용은 서유럽 대비 최소 24%(스페인 대비)에서 30% (독일) 저렴

b) 우수 인력 풍부: IMD Business School의 설문조사 결과, 숙련노동력 활용 가능성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는 영국, 이탈리아 및 중국보다 높은 점수

c) 기타 서유럽과의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및 물자/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특히 서유럽 시장을 위한 아웃소싱 기지로 급속한 발전 기대

## 5. EU 확대 후 폴란드의 산업별 변화 및 전망

### 가. 자동차 산업 동향

#### □ 지난 5월 EU 가입 후 폴란드 자동차 판매시장에 이상기류

○ 신차 판매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반면, 중고차가 물밑 듯이 밀려와 폴란드를 유럽의 “폐차장”으로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단, 신차 판매의 감소가 자동차 생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금년 8월까지 자동차 생산 34만 7천대로 전년동기 대비 80%나 증가

- 폴란드 생산 자동차의 89% 정도가 수출되고 있음.

□ 신차 판매대수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중고차 수입 폭발적으로 증가

- 8월 중 신차 판매대수는 전월대시 8% 감소하여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전년동월 대비 14.4%나 감소한 반면, 중고차 수입은 폭발적인 증가세 시현

- 금년 9월까지 52만 여대의 중고차가 수입되어 이미 2003년 연간 수입량 33,000대의 10여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5월 이후 수입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입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 자동차시장의 급격 등락은 EU 가입 영향에 따른 것

- 신차의 경우 기업의 일부 영업용 차량에 대한 부가세(22%) 공제가 5월 이후 사라져 가격상승 효과를 가져왔고, EU가입 후 자동차 업계의 공급가격 인상을 우려하여 구매를 5월 이전으로 앞당겨서 내수가 과열되어, 5월 이후의 신차 시장 하락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

#### □ 5월부터의 중고차 수입 폭증이 신차 시장에 결정적인 타격

- 수입 급증의 주된 요인은 EU 가입 후 중고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완화 등이며,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음.
  - 특히, EU 가입 후 중고차의 대량 유입은 안전, 공해 등 측면에서 폴란드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음.
- 현재로는 중고차 수입을 통제할 적절한 장치가 없어 자동차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고심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폴란드 정부당국은 노후 차량의 유입을 제한하는 조세 체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그래도 폴란드 자동차 판매시장은 성장 잠재력 막대함

○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수 시장 분석가들은 희망을 내비치고 있음

- SAMAR사 관계자는 폴란드의 낮은 자동차 보급률을 감안하면 향후 연간 100만대의 내수시장을 내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 폴란드의 보급률은 1천명당 350대 정도인데 유럽 평균은 450대 이상

나. IT 산업 동향

□ 폴란드 정보기술 시장, 내년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

○ 폴란드 시장정보 및 컨설팅서비스전문기관인 PMR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폴란드 IT시장 규모는 약 36억불에 달해 전년대비 11.5%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과 2005년 폴란드 IT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

[ 2003-2005년 폴란드 IT 시장동향 및 전망 ]

구분	단위	2003년	2004년	2005년
시장규모	주위티 억	139	160	180
	US \$ 억	36	41	46
성장률	%	11.5	15.1	12.1

(자료원 : PMR사)

## □ EU 가입 후, 낙후된 IT 분야에 투자 촉진

○ 폴란드 IT시장이 지난 2001/02년 기간의 부진(연간 4%대 신장)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 고속 성장세로 돌아선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폴란드 경제가 상승국면으로 2003년 3.8%로 회복하여 금년에는 6% 정도의 성장이 전망됨.

- 둘째, 금년 5월 EU 가입을 계기로 낙후된 IT 부문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임.

· PMR사의 에널리스트는 향후 수년간 최소 수억 주워티(Zloty화)에 달하는 EU의 지원자금이 IT분야로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

- 셋째, 폴란드의 정보화 수준이 서유럽과 비교시 아주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큼.

· PMR사 보고서는 폴란드 IT 시장이 유럽의 약체시장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수준에라도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와 성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

## □ IT 산업 중 특히 IT 서비스 부문 크게 발전하고 있음

○ 전체 IT 지출 중 컴퓨터 장비(하드웨어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지속 감소하는 반면, IT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90년대 후반 전체 IT 지출의 60% 이상이 컴퓨터 장비 부문으로 들어갔으나, 현재 그 비중은 44%로 하락, 2005년말 더욱 감소, 38-39% 정도가 되어 IT 서비스 부문의 비중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경향은 폴란드 IT 시장이 구조 측면에서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성숙시장과 닮아가고 있음을 의미함.

다. EU 가입으로 유망한 기타 산업

[식품산업]

□ 폴란드, EU 가입을 계기로 주요 식품 공급국으로 부상

- 폴란드 식품의 EU 진출이 급진전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폴란드 식품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EU 가입으로 잔존 관세와 국경 통제가 제거되어 폴란드 농산품 및 식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 올해 들어 폴란드 식품의 대 EU 수출 급증하고 있음
  - 5월 이후 4개월간 폴란드의 대 EU 식품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나 증가, 금년 8월까지 EU 21억 유로 상당의 식품을 수출

[2000-2003년간 폴란드의 농축산물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출	2,650	3,030	3,285	4,519
수입	3,183	3,406	3,576	4,013
수지	-533	-376	-291	506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 폴란드의 주된 수출품은 오랫동안 폴란드 농업 부문의 주종품목인 육류와 유제품이 될 것으로 보임.

- 폴란드 농업부 관계자는 “폴란드는 특정 부문, 특히 일부 과일류와 같은 저비용의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 앞으로 폴란드는 프랑스와 필적하는 유럽의 주요 식품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가구산업]

### □ 폴란드 가구산업 품질.기술면에서 세계적 수준

- 지난 90년대 독일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과 현지업체 인수 등으로 폴란드 가구 부문 선도업체들의 품질이나 기술수준은 세계 유명 제조업체들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 폴란드 가구산업 침체기에서 벗어나

- 2000년 이후 폴란드의 가구 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
  - 가구산업은 폴란드의 주력산업 중 하나로서 2000-2002년 기간 경제침체기에 가구 내수판매는 저하되었지만, 가구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않았음
  - 이는 현지생산의 절대 다수가 수출되어 해외시장에서 판매되기 때문임. (총생산 중 수출 비중은 2000년 80%에서 2003년 94%로 상승)
- 2003년 이후 가구 수출입 크게 상승
  - 2003년 기준 폴란드의 가구 수입은 2억 4,289만불에 달해 전년 대비 21.4% 증가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수입은 상승하는 추세임.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한편, 2003년 가구 수출은 전년대비 24.7% 증가한 15억 5,467만 불로 수입보다 6배 많음.
- 주요 수출대상국은 역시 유럽국가들로 독일, 영국, 프랑스, 체크 등이 상위를 차지함.

[폴란드의 가구류 수출입 동향 ]

- 수출 (단위 : US\$)

국명	2004. 상반기	2003	2002
총계	861,072,605	1,554,670,094	1,246,459,370
독일	326,619,409	567,876,805	478,144,305
영국	71,630,350	115,275,682	75,798,100
프랑스	45,976,641	87,772,005	74,140,887
체크	35,779,807	66,192,279	46,110,872
미국	32,881,493	74,923,408	53,898,716

- 수입 (단위 : US\$)

국명	2004. 상반기	2003	2002
총계	130,927,075	242,898,089	200,051,945
이탈리아	28,989,802	57,194,277	53,729,234
독일	20,508,710	37,795,790	39,384,779
스웨덴	10,966,106	17,254,766	12,513,833
덴마크	6,861,502	12,517,422	10,604,966
슬로바키아	6,552,072	14,667,665	8,586,143
한국	80,090	58,576	0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 폴란드 주력산업 중 하나로 EU 확대에 크게 성장할 전망

- 경제성장, EU 가입,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가구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시장전문가들은 경제성장과 EU 가입 효과에 힘입어 향후 수년간 폴란드인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가구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함.
  - 지난 2002년 17%의 폴란드인이 어떠한 종류의 가구든지 구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금년 비율이 20-2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헝가리]

### 1. EU확대 후 경제 동향

#### 가. 경제 동향

##### □ EU가입에 대한 기대로 올 상반기 경제 성장 4%대로 회복

- 헝가리 경제는 2001년부터 3%대의 경제 성장을 이어오다가 올해 상반기 중 4%의 GDP 성장을 기록하여, 올해 4%의 GDP를 시현할 전망

- 2001년 3.8%, 2002년 3.5%, 2003년 3.0%의 GDP 성장을 시현

- 성장 원동력은 수출증가와 투자 촉진임

- 2003년 4/4분기부터 수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난 3-4년간 경제성장 원동력이었던 국내 소비가 소득 감소로 인하여 반으로 감소.

##### □ 2005-2006년에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전망

- 앞으로 2년간 수출, 투자와 소비에 근거한 3.7-3.8%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전망

- 수출은 약간 감소할 것이며, 투자는 EU 관련 자금이 유입되면서 2005년 후반부터 촉진될 것으로 전망.

[헝가리 최근 GDP 변화]

(단위 : %)

	2001	2002	2003	2003	2004		
				1/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전분기대비	-	-	-	1.1	1.1	0.9	-
전년동기대비	3.8	3.4	3.0	3.3	4.0	4.1	-

(자료원 : EUROSTAT)

나. 기업투자 동향

□ 헝가리 기업투자 올해 중 11.0% 증가

- EIU Economic Forecast에 따르면, 헝가리 내 기업투자는 2003년 3/4분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올해 11% 증가할 것
  - 저금리, EU 관련 자금 유입 등 다양한 재정지원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2006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헝가리 기업투자 2005년 8%, 2006년 7% 증가
- 기업투자 회복과 함께 수입이 급증하여 수출 증대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여 무역수지에 부정적으로 작용

다. 물가동향

□ 헝가리 물가, 올 1/4분기부터 7%대로 급격히 상승

- 헝가리 소비자 물가는 올 1월부터 급격히 상승하다가 서서히 감소하여 11월 기준 5.7%를 기록하고 있으나, EU 평균치인 2.2%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물가가 1/4분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간접세 인상 및 EU 가입으로 인한 가격 조정으로 인한 것이었던 반면 2/4분기에는 주로 고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2004년 헝가리 각 월별 물가상승률]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2.3	1.1	0.5	0.3	0.9	0.0	0.0	-0.3	0.1	0.5
전년동월대비	6.7	7.0	6.6	7.0	7.8	7.5	7.2	7.2	6.7	6.4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 □ 물가는 2005년초 다시 상승할 전망

- 물가는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5년 초반에 다시 상승한 후 2006년까지 다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고유가와 임금 상승 여향이 내년 초 되서야 물가에 반영 될 것으로 보임.

## 2. EU 확대 후 헝가리 수출입 동향

### 가. 최근 수출입 동향

#### □ 올해 헝가리 수출입 호조

- 2004년 1-9월 중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6.4% 증가한 38억불, 수입은 25.9% 늘어난 43억불 기록
  - 주력 시장인 EU-25개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수출 호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헝가리의 산업구조(연관산업 취약) 상 수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필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도 호조를 보이고 있음

[ 2004년 1-9월 헝가리 수출입 동향]

(단위 : US\$ 백만, %)

	수 출		수 입	
	당월	누계	당월	누계
1월	3,893(33.9)	3,893(33.9)	4,002(26.3)	4,002(26.3)
2월	4,144(35.7)	8,037(34.8)	4,502(28.6)	8,504(27.5)
3월	4,676(30.7)	12,712(33.3)	5,114(33.1)	13,618(29.6)
4월	4,138(24.2)	16,851(30.9)	5,331(37.1)	18,949(31.6)
5월	4,223(21.1)	21,074(28.8)	4,768(19.9)	23,717(29.1)
6월	4,628(27.7)	25,702(28.8)	5,211(30.3)	28,928(29.3)
7월	4,387(23.1)	30,089(27.8)	4,795(17.2)	33,723(27.4)
8월	3,795(23.6)	33,884(27.3)	4,288(22.4)	38,010(26.8)
9월	4,999(24.9)	38,701(26.4)	5,405(28.4)	43,046(25.9)

(자료 : 헝가리 통계청)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 EU 가입 이전 수출입 증가율이 가입 후 보다 높아

- EU 가입 이전 수출입 증가율이 이후 보다 높은 것은 가입 후 불확실성에 대한 업체들의 심리를 반영
  - EU 가입한 5월 전월 대비 증가율 현저하게 감소,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역외국과의 교역 활성화

- 다른 EU 회원국들은 EU확대 후 역외국과의 교역이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헝가리의 역외국과의 교역 오히려 증가

- 특히 아시아국가와의 교역이 올해 1-9월 중 크게 증가  
 대 한국 : 수출 167.1%, 수입 65.5%  
 대 중국 : 수출 140.1%, 수입 100.6%  
 대 일본 : 수출 19.2%, 수입 44.5%

[헝가리의 역내외 교역 현황 (2004, 1-9)]

(단위 : US\$ 백만,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EU 25	30,816 (23.8)	31,796 (21.7)	-980
. EU-15	27,614 (22.2)	27,855 (19.7)	-241
. 新 EU-10	3,202 (38.9)	3,941 (37.7)	-738
非 EU	7,885 (37.7)	11,251 (39.7)	-3,366
. 아시아	1,766 (48.3)	5,171 (60.5)	-3,405
- 한국	70 (167.1)	578 (65.5)	- 508
- 중국	329 (140.1)	1,438 (100.6)	-1,109
- 일본	246 (19.2)	1,238 (44.5)	- 992
. 미국	1,409 (30.5)	926 (34.0)	483
. 非 EU 유럽	4,443 (38.0)	5,097 (24.4)	- 654
계	38,701 (26.4)	43,046 (25.9)	-4,346

(자료: 상동)

- 주] 1. EU-25가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9.6%, 73.9%임.  
 2. (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 3. EU 확대 후 헝가리의 투자유치 현황

#### 가. EU가입을 전후한 투자유치 변화 및 전망

##### □ 올해 외국인기업들의 대 헝가리 투자 회복

- 헝가리의 EU 가입은 2000년 이후 부진한 헝가리의 외국인투자유

치를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음.

- Ernst & Young은 헝가리를 비롯한 중부유럽이 유럽의 신흥 외국  
인투자유치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힘.
- 특히 헝가리는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건수 측면에서 중동구권  
최대 수혜국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전자 혹은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  
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헝가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  
부 경제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 척결, 세제 개편, 노동 숙련도  
향상, 인건비 상승 속도 제한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  
치 않음.

#### □ EU 확대 후 유럽지역 기업 헝가리 진출 관심 커져

- 헝가리 투자진흥청 보고서에 따르면, EU확대 후 유럽지역 기업들  
의 헝가리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 지난 5월 이후부터 헝가리 기업들과의  
M&A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총 15건), 적어도 각 건별 100  
만유로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됨

[2004년 주요 투자기업(10대, 금년도 투자결정 기준)]

(단위 : 백만 유로)

순위	기업 명	국명	투자종목	투자규모	투자지역
1	Bosch	독일	차부품, 컴프레셔	150	God
2	Asahi Glass	일본	차부품	120	Tayabanya
3	Ibiden	"	차부품, 세라믹필터	100	Dunavarsany
4	Denso	"	차부품	95	Shakesfehevar

5	Electrolux	스웨덴	냉장고	65	Nyiregyhaza
6	Michelin	프랑스	타이어	60	"
7	Nokia	핀란드	휴대폰	50	Komarom
8	Gl-Group Int'l	벨기에	유통	25	Budapest
9	Sanyo	일본	솔라 배터리	18	Dorog
10	Perlos Corp.	벨기에	휴대폰 부품	15	Komarom

(자료원 : 부다페스트무역관 실사)

## □ 상반기 FDI 부진, 하반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헝가리 경제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헝가리의 외국인투자유치 규모는 9.1억 유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이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썬크탱크들은 헝가리의 올 외국인투자유치 규모가 적어도 3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헝가리의 최근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연도	2001	2002	2003	2004(1-6)	* 2004
규모	2,575	3,068	3,439	423	3,500

(자료 : 헝가리 경제부) 주] 1. \*는 전망치임.

- 2. 금년 상반기 외국인투자 유치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55%에 해당하는 5억 3백만 유로에 달함.

## □ 향후 헝가리 FDI 유치 전망

○ 헝가리 기업들의 민영화 작업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EU 확장에 따른 서구 기업의 동진, 기존 진출기업의 재투자가 계

속해서 증가할 전망

- 헝가리에 지역본부를 두려는 외국기업의 수 급증하고 있으며, 운송, 호텔, 은행, 기타 금융 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또한 현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헝가리 독일상공회의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헝가리에 진출해 있는 44%의 독일, 프랑스 기업이 향후 활동 영역을 강화하고 투자 또한 늘려 나가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4. EU 확대 후 헝가리 동향

##### 가.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

###### □ EU 확대 후, EU 가입에 대한 지지율 하락

- 헝가리 등 10개 신규 EU 가입국 여론을 보면 EU 가입 이전에는 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나, 가입 직전 내지 가입 직후인 최근에는 이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EU 가입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수준 향상 등의 혜택으로 돌아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남.

###### □ 소비자물가 크게 상승

- 헝가리의 경우 작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 이었으나, 금년에는 6.5%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헝가리 정부가 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재정적자 만회를 위한 세 공과금 인상 등에 있으며, 이에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가 상승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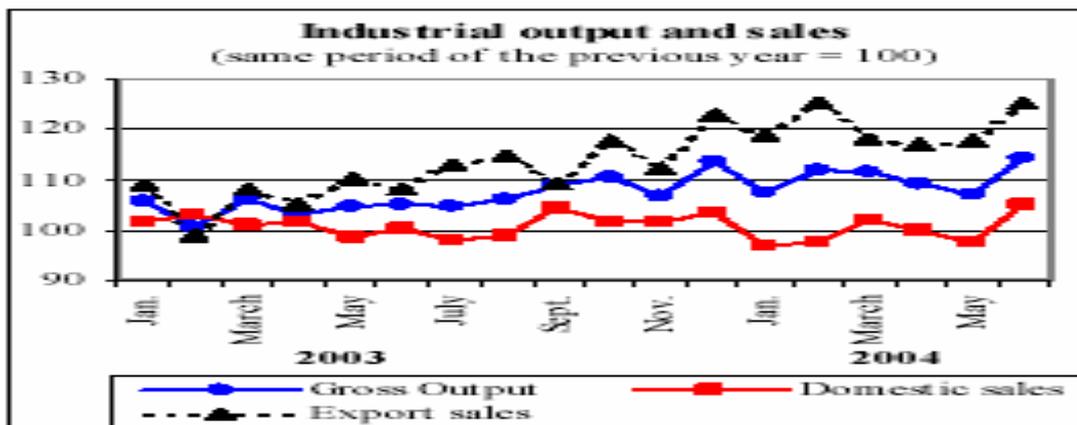
## 나. 기업들이 받는 영향

- 기업들이 받는 영향은 제도적 영향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격화로 인한 기업 생존 위기감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분리해 볼 수 있음.
-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환경기준 채택, 공산품 인증, 수출입제도, 조세 구조 등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문으로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이에 대한 인식 혹은 준비 부족으로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임.
  - 환경기준은 비용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는 가격에 전가됨으로 인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됨.
- 역내 수입의 경우 수입 후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고가 불가피하며, 한동안 혼선을 겪었던 수입 통관 문제는 점진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양상임.
- 부가가치세, 자동차 등록세, 환경세 등 세금 구조가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된 경우 징수, 환급 등의 절차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에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제도적 요인 외에 시장개방에 따른 서구 선진기업의 시장진입으로 기존 중소로컬기업의 도산, 합병 등 구조조정이 국내시장에서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두드러짐.

## 5. EU 확대 후 각 산업별 변화 및 전망

### 가. 전반적 동향

- 2004년 들어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의 호조가 산업생산을 늘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음.
  - 1-9월 수출증가율은 17.8%이며, 산업생산 증가율을 전년 대비 9.1%에 달함.
- 특히 제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의 수출증가율이 13.0%에 달하였으며, 특히 전자(IT 포함)가 28.3% 증가한 반면 자동차는 제조업 평균 수출증가율 23.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3.0% 증가에 그친 것이 특징임.
  - 반면 같은 기간 내수는 오히려 0.9% 감소해 내수 증가를 끌어 올리는 것이 향후 성장 지속의 관건이 되고 있음.



(자료원 : Kopint Datrog)

## 나. 각 산업별 동향

### 1) 전자산업(IT 포함)

□ 헝가리 전자산업(IT 포함)은 올해 들어 크게 성장

○ 산업생산은 물론, 수출, 내수, 투자, 외국인투자 유치 측면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산업적 위치를 차지

- 헝가리 산업에서 IT 포함한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

- 올 1-9월 중 전체 산업생산의 29.56%를 점유하였으며, 매출 증가율도 28.3%에 달해 헝가리 총 수출의 35%이나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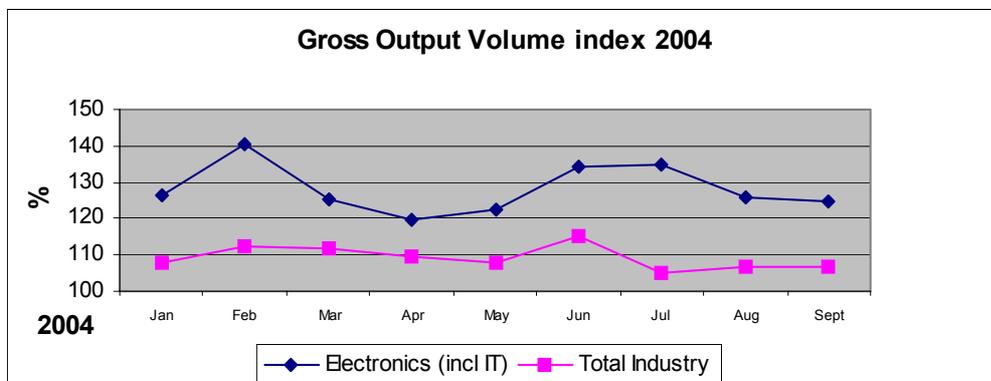
[전자 생산 및 매출 동향(2004, 1-9)]

(단위 : US\$ 백만, %)

전체 생산		전체 매출		내수		수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5,372	28.0	15,215	26.1	1,437	20.4	13,778	28.3

(자료 : 헝가리 통계청)

[2004년 전자산업 총 생산 규모]



(자료 : 헝가리 통계청)

□ 전자산업의 호황에 편승해 IT 산업도 금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생산에서는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는 아직 부진한 상태이며, 수출로 이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

- IT 산업 내수 부진한 원인은 헝가리 정부의 IT 보급 촉진정책 (Sunlinet Express Program)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에 있음

[헝가리 IT(사무용품)산업 증가율 동향(2004.1-9)]

(단위 : %)

생산	매출	내수	수출
11.5	11.8	-36.9	14.6

(자료원 : 헝가리 통계청)

○ 지난 2년간 헝가리 전자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으나 EU 가입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존 투자자들이 생산을 대폭하고 있으며, 서유럽 공장을 헝가리로 이전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헝가리 IT 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

○ 싸고 숙련된 노동력과 EU시장과의 근접성 때문에 헝가리 IT 산업은 그동안 세계 주요 전자업체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Nokia, Flextronics 등)을 헝가리로 유치하는데 성공

- 그러나 지난 2002년 Flextronics사의 임금이 훨씬 싼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 계획이 반영하듯이 급증하는 노동비용과 불안정한 포린트화(Forint)는 헝가리의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기업들이 EU 시장공략을 목표로 전자제품 생산을 헝가리로 이전하고 있어, 헝가리 IT 산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2) 자동차산업

### □ 헝가리 자동차산업 EU 확대 계기로 성장

- 헝가리 총 산업생산의 14% 점유,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 활발
  - 완성차 메이커의 헝가리 진출에 따라 부품기업들의 동반 진출도 활발(완성차 메이커가 터를 확보한 후 부품 메이커가 따라서 진출하는 투자진출 패턴)
- 올해 중 내수만 부진, 수출, 생산, 매출 등 전년대비 10% 안팎 증가

#### [자동차산업 생산 및 매출 동향 (2004,1-9)]

(단위 : US\$ 백만, %)

전체 생산		전체 매출		내수		수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8,019	9.0	8,001	10.1	683	-8.1	7,318	12.2

(자료 : 상동)

- 헝가리, 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함께 중부유럽 자동차 메카로 급부상
  - 헝가리는 “스즈키”, “아우디”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를 유치, 이와 함께 방대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형성
  - 연간 자동차 판매 매출이 연간 10억불에 달하는 반면, 부품은 15억불 기록

- 향후 헝가리 자동차산업, 타 중부유럽 국가에 비해 경쟁력 떨어질 것
- 헝가리 자동차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노동비용이 자동차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 또한 노동력풀이 기타 중부유럽국가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헝가리가 앞으로 신규 대규모 플랜트를 유치할 수 있을지 불투명
  - 자동차메이커들은 주요 대규모 공장을 실업률이 훨씬 더 높은 슬로바키아나 폴란드 등으로 이전/설립하고 있음

### 3) 철강산업

- 올해(1-9월) 철강수출 전년동기대비 34.8% 증가
- 올해 철강산업은 전세계적인 철강수요 호조에 힘입어 생산 및 매출은 10% 증가, 수출은 34.8% 급증.
  - 금년도 전세계 철강생산은 전세계적인 철강수요 붐으로 사상 최대치인 10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헝가리의 철강생산도 이와 같은 세계수요 확대 뿐 아니라 EU가입으로 인한 수요 급증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금년에 생산량이 60억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처럼 현지 철강 생산 및 수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현지 철강산업 성공의 관건은 품질제고에 달려 있음.
  - 현지 철강 소비산업이 점점 더 고품질 철강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아웃소싱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함

- 게다가 현지 철강업계의 경쟁요인중 하나인 저임 역시 점차 사라질 것이므로, 품질제고 노력은 더욱 중요함

[철강산업 생산 및 매출 동향 (2004, 1-9)]

(단위 : US\$ 백만, %)

전체 생산		전체 매출		내수		수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4,529	9.9	4,467	10.1	2,285	-6.3	2,181	34.8

(자료 : 상동)

- 규모나 품질면에서 EU-15개국에 뒤떨어져
  - EU 신규회원국 중 폴란드가 최대 철강생산국으로 2003년중 9백만톤을 생산하였으며 이어 체크(6.8백만톤), 슬로바키아(4.6백만톤), 헝가리(2백만톤)임.
  - 그러나 이들은 EU 15국의 주요 철강 생산국인 독일(45백만톤), 이태리(27백만톤), 프랑스(20백만톤)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준
  - 철강산업은 여전히 가입국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특히 폴란드와 체크의 경우 총 제조업 생산의 5%을, 슬로바키아에서는 10%을 철강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 향후 헝가리 철강산업 전망

- EU 가입으로 이미 헝가리 철강산업이 많은 구조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도전과 기회가 남아있음
  - 비록 EU 15 국 철강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는 하나, 현지 철강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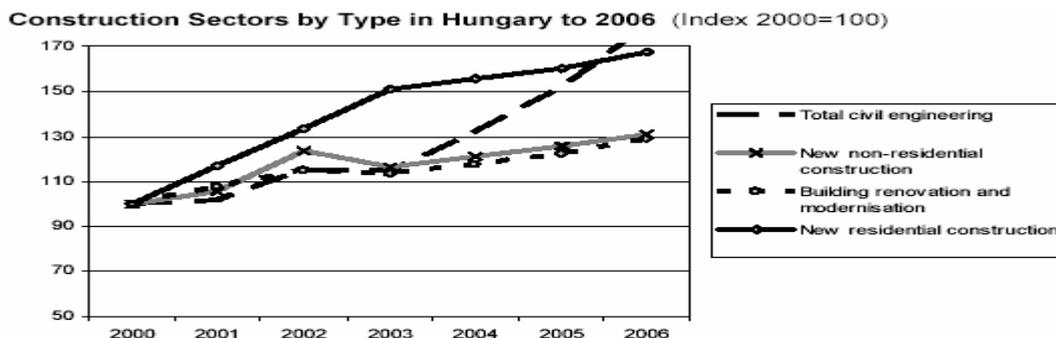
- 헝가리의 많은 철강업체들이 여전히 EU 관련 법규와 규정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므로 특히 노동과 환경기준 준수가 주요 장벽이 될 것임

## 다. EU 가입으로 유망한 기타 산업

### □ 건설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산업

- EU 가입에 따라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은 오는 2006년까지 붐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특히 EU 지원자금이 대거 투입되는 도로(특히 고속도로 확충) 건설을 비롯하여 주택, 사무실 등 일반건설 부문도 계속적 호황을 구가할 것으로 기대됨.

[건설 각 분야별 성장 현황 및 전망]



Source: Euroconstruct, 2004

### □ 환경산업

- 헝가리 정부에서는 EU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환경 프로그램(National Environmental Programme)'을 만들어 정부 투자는 물론 민간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오는 2008년까지 헝가리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2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절반은 EU 기금에서 파이낸싱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

[2008년까지 헝가리 정부 환경투자 예상 규모]

(단위 : US\$ 10억)

구분	직접투자	간접투자	보조금 등	계
투자규모	4.5	4.0	2.0	10.5

(자료원 : 헝가리 환경부)

## 6. EU 확대로 한국업체들이 진출 유망한 분야

### □ IT

- 기존 EU 회원국과의 정보 갭 해소, 정보화사회 촉진 등을 위한 IT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10% 내외의 성장이 예상됨.
  - 하드웨어는 물론 보안, ERP, 디지털 콘텐츠, 게임 등 소프트웨어, e-Government 등 정보통신 분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함.

### □ 전자부품

- 전자산업은 헝가리의 주력산업이나 완제품 조립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혹은 중간재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임.
  - EU 가입 이후 전자 다국적기업의 헝가리 진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전자부품에 대한 수요는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비

용절감을 위한 다국적기업의 아웃소싱도 확대될 예상.

## □ 자동차부품

- '기아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 진출하는 등 중부유럽은 중국과 더불어 21세기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음.
  - 완성차 메이커의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품업체들의 현지 진출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상황임.
-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완성차 메이커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현지 한국차의 수요도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A/S 부품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2007년 중부유럽 국가 승용차 생산 전망]

국 명	생산대수 (단위 : 천)	비율(% , 중부유럽 내)
슬로바키아	850	32
체 크	800	30
폴란드	550	20
헝가리	200	10
슬로베니아	200	8
계	2,700	100

(자료 : Nepszabadsag)

\* 세계 완성차 생산 현황(2003년 기준, 총 4,200만대) : 유럽 : 1,720만대, 아시아-대양주 : 1,620만대, 미국 : 830만대, 아프리카 : 30만대

## □ 환경설비 및 기자재

- 환경산업은 헝가리 등 新 EU-10에서 가장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는 산업으로 헝가리의 경우 향후 10년간 환경시장 규모가 1,000

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폐수 혹은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대기오염 방지, 리사이클링 등은 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문임.
- 현재 중동구권 환경시장은 유럽 혹은 미국이 거의 석권하고 있으며, 한국 등 아시아제품의 진출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 건설기자재

- EU 확대로 유럽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중동구권 도로망 확충을 위한 공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EU의 지원 자금이 대폭 투입되고 있음.
- 특히 헝가리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물류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건설기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추세임.
- 일시적으로 주춤하던 건설경기도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혹은 일반 빌딩의 건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 농업기계

- EU에의 편입은 역내 농업의 무한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농업설비 현대화가 필연적인 과제임.
- 한국산 농기계의 현지 시장 진입은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하나, 트랙터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시장 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 일반소비재

- 저가 일반소비재의 경우 중국산, 동남아산 등이 일찍부터 현지 시장에 자리 매김을 하고 있고, 고가품의 경우 유럽산 혹은 미국산이 시장을 독점해 진출 여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산 등 저가 제품에 식상한 소비자들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품질이 고가품에 비해 손색이 없는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틈새가 충분히 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TV, 냉장고, 에어컨 등은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한국 대기업 브랜드의 시장인지도가 매우 높아 이러한 여파를 충분히 활용하면 일반소비재의 진출 가능성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여지도 많음.
- 거래 시 유의할 사항은 소량 다품종, 결제조건, 신속한 납기 등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면 틈새시장 개척이 가능함.
  - 유망품목은 액세서리(안경테, 선글라스, 모조장신구 등), 문구, 교육용 완구 등임.

## [체크]

### 1. EU확대 후 경제 동향

#### 가. 경제 동향

##### □ 체크 경제 EU 확대 후 안정적인 성장세 시현

- 체크 경제는 2001-2003년 경기 부진에서 탈피해, 2003년부터 경기가 3.1%로 회복되면서 올 상반기 중 1/4분기 중 3.6%, 2/4분기 중 4.1%의 GDP 성장을 기록 2004년에는 평균 3.8%의 GDP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체크 최근 GDP 변화]

(단위 : 증가율, %)

	2001	2002	2003	2003	2004		
				1/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전분기대비	-	-	-	0.9	1.0	1.2	-
전년동기대비	2.6	1.5	3.1	3.6	3.6	4.1	-

(자료원 :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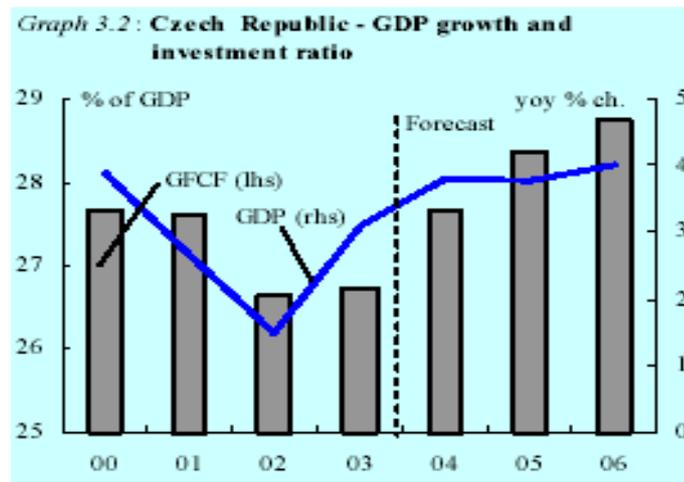
- 고정 자본투자(fixed capital investment)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경제 성장 촉진
  - 고정 자본이 올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9.6%, 2/4분기 중 12.8% 증가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
  - 안정적인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을 촉진한 반면 임금 하락 및 실업률 증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EU 가입 후 수출입 증가 또한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EU 가입으로 기존 EU-체크간 무역장벽이 제거되면서 2/4분기 중 수출이 23.1%, 수입이 24.7% 대폭 증가, EU 가입 효과를 특히 보고 있음

□ 3-4%대의 경제성장 당분간 지속될 듯

- 올해 GDP 성장은 투자가 크게 급증하면서 3.8%를 달성할 전망
- 2005년, 2006 GDP 성장은 EU가입으로 인한 교역 활성화 및 투자 촉진으로 각각 3.8%, 4% 기록할 것으로 보임

[GDP 성장 대비 투자 비율]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나. 재정적자

□ 체크 재정적자 EU-25 평균(2.8%) 크게 웃돌아

- 체크의 공공 재정적자 규모는 2003년 GDP의 12.9 %에 달했으며 이는 EU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

- EU-25개국의 평균 재정적자인 2.8%를 크게 넘어선 것이며 현재의 유로화 도입조건 중 하나인 “GDP의 3% 이내의 재정적자”를 위반하고 있음.
- 이러한 높은 재정적자는 체크의 유로화 공식사용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EU가입과 함께 체크는 EU 예산을 일부 부담해야 하므로 체크의 EU 가입 자체가 현재의 재정상황을 개선시키진 못할 것
- 이런 이유로 유로화의 공식채용은 빨라도 2010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체크 정부는 2006년까지 재정적자가 GDP의 4%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다. 물가동향

##### □ 체크 물가, 간접세 인상과 고유가로 2004년 들어 증가

- 체크 소비자 물가는 올해 초 급격히 상승하다가 서서히 감소하여 10월 기준 3.1%를 기록
  - 체크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고유가와 간접세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회원국 중 가장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시현

[2004년 체크 각 월별 물가상승률 변화]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1.6	0.1	0.1	0.1	0.6	0.1	0.3	0.0	-0.7	0.4
전년동월대비	2.0	2.0	2.1	2.0	2.6	2.7	3.1	3.2	2.8	3.1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 물가는 2005-2006년 2.9-3%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물가는 올해 2.8% 수준을 기록하고, 2005년에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3% 수준을 달성할 전망.
  - 고유가와 임금 상승 영향이 내년 되서야 물가에 반영 될 것으로 보임.

## 2. EU 확대 후 체크 수출입 동향

### 가. 최근 수출입 동향

□ EU 가입 효과로 수출입 크게 급증

- 2004년 1-10월 중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6.4% 증가한 61.4억불, 수입은 24.7% 늘어난 63.1억불을 기록
  - 특히 EU 국가로의 수출입이 동기간 중 각각 33.7%, 31.8% 증가 EU 가입으로 인한 수출입 여건 개선 및 소비자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1-10월 체크 수출입 동향]

(단위 : US\$ 백만, %)

	수 출		수 입	
	당월	증가율	당월	증가율
1월	4,160	13.9	4,159	13.4
2월	4,830	34.3	4,571	27.4
3월	5,291	30.3	5,427	31.6
4월	5,423	35.9	5,875	38.2

5월	5,735	37.7	5,659	33.2
6월	5,684	37.9	5,662	33.3
7월	5,348	36.0	5,603	28.7
8월	5,031	48.3	5,113	40.7
9월	6,071	41.4	5,926	38.6
10월	6,141	26.4	6,306	24.7
총	53,715	34.1	54,402	31.0

(자료 : 체크 통계청)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 □ EU 가입 시점 전후로 교역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

- 체크의 수출입은 EU 가입 시점을 전후로 하여 5월까지 증가하다가, 6월부터 서서히 감소하여, 9월부터 다시 급증
  - EU 가입 이전 수출입이 증가한 것은 EU가입에 대한 소비자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나. 주요 교역 파트너

### □ 수출

- 수출의 경우 10대 수출시장 중 미국을 제외하면 모두 EU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EU 확대 효과로 2004년 1-10 월간 11%(영국) - 42%(벨기에) 이상의 수출 증가율 기록

[체크의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 백만 CZK, %)

국명	2003년 1-10월	2004년 1-10월	증감율	시장점유율	
				'03년	'04년
독일	422,075	514,164	21.8	37.1	36.6
슬로바키아	89,586	117,725	31.4	7.9	8.4
오스트리아	71,287	85,415	19.8	6.3	6.1
영국	61,704	68,686	11.3	5.4	4.9
폴란드	54,658	71,910	31.6	4.8	5.1
프랑스	54,309	63,915	17.7	4.8	4.6
네덜란드	47,059	58,461	24.2	4.1	4.2
이태리	50,216	61,323	22.1	4.4	4.4
헝가리	26,312	37,628	43.0	2.3	2.7
벨기에	25,726	36,542	42.0	2.3	2.6
중국	5,225	5,824	11.5	0.5	0.4
일본	3,584	4,645	29.6	0.3	0.3
한국	809	1,109	37.1	0.1	0.1

(자료원 : 체크 통계청) 주) 국별 수출입 동향은 체크 현지화로만 집계

## □ 수입

- 수입 역시 최대수입국 독일을 비롯한 7개국 이 모두 EU회원국이며, 비 EU국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 있음.
  - 10대 수입국 중 중국에서의 수입은 1-10월 중 24.2%가 증가, 수입 시장점유율이 2003년 5.0%에서 5.1%로 확대하는 호조를 보였음
  - 대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 수입은 각각 34.7%, 76.5% 증가, 시장점유율을 각각 0.7->0.8%, 2.2%->3.3%로 확대, 체크 수입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 국가에서의 수입은 같은 기간 중 평균 22.2% 이상 증가  
[체크의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 백만CZK, %)

국명	2003년 1-10월	2004년 1-10월	증감율	점유율	
				'03	'04
독일	387,571	452,476	16.7	32.8	31.8
슬로바키아	61,600	77,312	25.5	5.2	5.4
이태리	62,854	75,387	19.9	5.3	5.3
중국	58,661	72,847	24.2	5.0	5.1
프랑스	58,602	67,812	15.7	5.0	4.8
폴란드	48,801	66,565	36.4	4.1	4.7
오스트리아	50,978	58,672	15.1	4.3	4.1
러시아	52,528	57,953	10.3	4.5	4.1
일본	26,444	46,665	76.5	2.2	3.3
미국	37,580	45,387	20.8	3.2	3.2
한국	8,362	11,267	34.7	0.7	0.8

(자료원 : 체크 통계청) 주) 국별 수출입 동향은 체크 현지화로만 집계

### 3. EU 확대 후 체크의 투자유치 현황

#### 가. EU가입을 전후로 한 투자유치 변화

##### □ 2004년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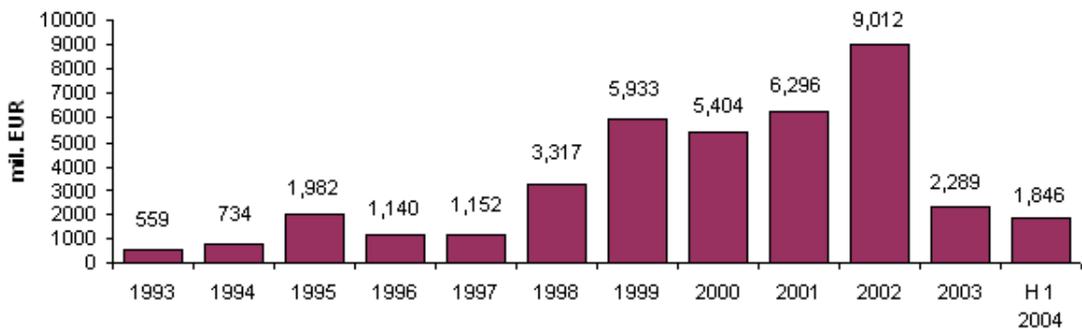
- 체크를 포함한 EU 국가들이 올해 초 경제침체기에서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체크의 외국인투자규모 다시 증가하기 시작
  - 체크 투자유치청(CzechInvest)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이 상반기 중 1,846백만 유로를 기록, 올해 중 50억불 달성 가능 하여 작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
- 2002년 체크의 FDI 유치가 90억불을 돌파해 피크에 달한 후 2003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하여 FDI가 1/4 수준으로 급락 22.9억불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금년 들어 투자유치가 외국인기업들의 EU가입에 대한 기대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기준 체크는 중부유럽 국가(헝가리, 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중 가장 높은 1인당 FDI를 기록
- 2003년 1인당 FDI, 체크 4,100유로, 헝가리 3,730유로, 슬로바키아 1,950유로, 폴란드 1,360유로 기록

[체크의 연도별 FDI 유입 추세]

(단위 : 백만 유로)



(자료원 : 체크 중앙은행, 2004년 9월)

#### □ 투자 관련 규정 등 EU 가입 이전과 동일

- EU확대 후 체크 투자유치에 큰 변화는 없는 반면, 투자유치액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R & D 부문 및 서비스 분야에 투자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음.
  - 인센티브 및 기타 투자 규정은 EU 가입 이전과 동일

#### 나. 주요 투자국 및 투자기업

□ 서유럽 기업들이 주요 투자국

- 체크 투자 추진 기업 중서유럽 기업이 최다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의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음
- 독일,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가 최다 투자국이며 올 상반기 중 총 FDI 중 각각 23%, 24%, 11%를 차지
- 특히 R&D 부문 및 서비스 분야에의 투자 프로젝트가 증가

[최근 주요국별 FDI 유치 실적]

(단위 : 백만 유로, %)

국가	2002		2003		2004(1-6)		1993-2004.6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독일	4,942	55%	733	32%	419	23%	12,474	31%
네덜란드	1,305	14%	-1,383	-	440	24%	5,278	13%
오스트리아	809	9%	542	24%	209	11%	4,238	11%
프랑스	151	2%	462	20%	62	3%	3,320	8%
미국	201	2%	180	8%	126	7%	2,749	7%
벨기에	464	5%	135	6%	33	2%	2,374	6%
스위스	288	4%	233	10%	30	2%	2,081	5%
영국	-234	-	240	11%	-15	-	1,368	3%
스웨덴	115	1%	17	1%	34	2%	572	1%
일본	123	1%	224	10%	87	5%	588	1%
덴마크	100	1%	7	0	-4	-	480	1%
이태리	135	1%	62	3%	20	1%	383	1%
캐나다	-119	-	14	1%	55	3%	22	1%
기타	731	8%	822	36%	349	19%	3,537	9%
총	9,012	100%	2,289	100%	1,849	100%	39,664	100%

(자료원 : CzechInvest)

□ 올 1-9월까지 총 33건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 집계

○ 체크 투자유치청(CzechInvest)에 따르면, 올 1-9월까지 총 33건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에는 총 59건의 프로젝트, 총 22.9억 유로를 투자유치

#### □ EU확대 후 주요 투자 프로젝트

투자기업명	국가	투자분야	투자금액
Benteler Automobiltechnik	독일	자동차 부품	n.a.
Sun Microsystems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n.a
Roper Industries Inc.	미국	실험실 장치 개발센터	0.93백만불
Toyo Radiator	일본	Heat Exchanger	n.a.
Connaught Electronics	아일랜드	자동차부품	2백만불
Arcelor	프랑스	철강	19.2백만불
Kyocera	일본	전자	7.8백만불
Aguna	스위스	정밀공구	9.72백만불
Asus Tek Computer	대만	전자	25.2백만불
Daikin	일본	정밀공구	46.6백만불

(자료원 : CzechInvest)

#### 4. EU 확대 후 각 산업별 변화 및 전망

##### 가. 자동차산업

□ 투자, 수출 지속 증가

○ 현재까지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분야이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EU확대 후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 추세

- 금년 9월까지 자동차 생산대수는 333,441대로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기록

#### □ 자동차 생산은 부진

- 자동차생산 감소는 주로 내수판매 부진에 따른 것으로 금년 9월까지 체크산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28만9970대를 기록한 반면 체크산 자동차의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0.4% 감소한 5만712대에 그쳤음.

- 내수판매 부진은 특히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체크산 승용차의 경우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11.1% 감소를 보였으며, 수입산을 포함한 전체 승용차 판매대수는 12.2% 감소한 9만 9천2백대에 그쳐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체크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Skoda Auto의 경우도 금년 9월까지 32만6천3백대의 승용차를 생산하여 전년 동기대비 1.7% 생산 감소 기록

- 동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28만5천대를 기록한 반면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1.1% 감소한 4만8천5백대에 그쳤음

#### □ EU 확대 후 중고차 비중 확대 추세

- EU 확대 후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10월53.56% 기록

- EU확대 후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율은10%으로 인하

되어 한국 및 일본산 승용차 자동차 판매 호조세

- 금년 체크의 승용차 판매대수는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으나 한국산 자동차는 소형차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한 5,985대가 판매돼 체크 시장점유율을 전년동기의 5.2%에서 금년 1~8월 기간 중에는 6.8%로 크게 높아 졌음

## 나. IT산업

□ 외국인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어

- 최근 외국인 투자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외국 기업들이 특히 서비스 부문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미 체크 시장에 진출한 주요 외국 IT 기업으로는 Philips, Siemens, Sun Microsystems, Logica, IBM, EDS, HP Services, Symbol Technologies사 등이 있음

- 체크 IT 기업들은 아직 취약한 수준. 현재 독일과 미국시장에 진출한 4개 체크 기업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임

- 체크가 EU로 가입한 이후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는 분야임

## 다. 철강산업

□ 철강산업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

- 1990년대초 이 분야에 10만명이 고용되어 있었으나 현재 고용인원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2010년까지 약 20% 감소 전망

- EU확대 후 환경규정이 엄밀해짐에 따라 기업수 감소

□ 세계 철강수요 증가로 철강수출 급증

○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인 철강수요 호조에 힘입어 체크의 금년 상반기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4% 급증한 CZK120억(약 4억 7000만 달러)에 달하면서 1970년대 이래 지난 30년간 체크 역사상 최대의 수출 달성 전망

- 체크의 철강 수출은 특히 중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철강 수출 때문에 전체 대 중국 수출은 금년 약 9.3% 증가 전망

○ 금년도 전세계 철강생산은 전세계적인 철강 수요분으로 사상 최대치인 1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체크의 철강생산도 이와 같은 세계수요 확대 뿐 아니라 국내의 건설경기 및 엔지니어링 부문의 회복에 따라 내수부문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금년 생산량이 6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이 수출 및 내수호조에 힘입어 체크 철강산업의 금년 1/4분기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 철강 수출 (2004년 1 ~ 4월)

Code	Commodity	Code	Partner country	Netto(kg)	USD (ths.)
<a href="#">72</a>	Iron and steel	1	Europe	1 767 616 827	709 378
<a href="#">72</a>	Iron and steel	3	America	66 720 513	26 113
<a href="#">72</a>	Iron and steel	4	Asia	62 078 388	22 666
<a href="#">72</a>	Iron and steel	2	Africa	20 740 298	9 312
<a href="#">72</a>	Iron and steel	5	Oceania and Polar regions	1 275 443	800

○ 철강 수출 (2004년 5 ~ 9월)

Code	Commodity	Code	Partner country	Netto(kg)	USD (ths.)
<a href="#">72</a>	Iron and steel	1	Europe	2 200 820 128	1 016 374
<a href="#">72</a>	Iron and steel	3	America	37 246 517	30 937
<a href="#">72</a>	Iron and steel	4	Asia	21 260 577	16 398

## 라. 섬유산업

□ 시장경제 전환 이후 잘 발달하지 못 하는 부문 중 하나

○ 2005년 1월부터 아시아산 섬유 수입 쿼터제가 폐지로 타격 입을 것

- 따라서 대 EU 수출에 의존하는 체크 섬유 산업은 아시아산 섬유 제품과 경쟁하지 못 하게 될 전망이며 이 분야의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현재 체크 섬유산업에 고용된 9만5천명중 4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중국에 큰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2003년 적자액: 약 23억불)

## V. EU 확대 후 우리나라의 대 EU 진출 현황

(체크,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 [수 출]

#### □ EU확대로 우리나라의 대 EU수출 급증

○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이 전년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시장에 대한 우리 수출이 계속 쾌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 EU 신규회원국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대 기존EU회원국 수출증가율 : 35.8%

- 대 신규EU회원국 수출증가율 : 98.5%

####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3년	2004년 1-11월
EU 기존회원국(15)	24,887 (14.7)	30,516 (35.8)
EU 신규회원국(10)	2,093 (2.7)	3,681 (98.5)
EU - 25개국	26,980 (13.7)	34,197 (40.6)

(자료원 : KITA)

주) ( )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주력 시장인 서유럽의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물론 신흥유망시장인 중.동구권에 대해서도 큰 폭의 두 자릿수 수출증가를 실현

- 이는 지난 5월 1일 출범한 EU 확대가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기도 함

#### □ 특히 금년(1-11월) 들어 신규회원국에 대한 수출 98.5% 증가

○ 신규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36.8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98.5% 급증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은 32.5%, 대EU25개국 증가율 40.6%)

- 신규회원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3년 1.1%에서 2004년 1-11월 중에는 1.6%로 상승
- 수출 급증한 국가는 사이프러스(288.5%), 슬로바키아(209.7%), 폴란드(103.8%), 체크(91.2%)

[대 EU 신규회원국 수출현황]

(단위 : 천불, %)

순위	국명	2003년	2004년 1-11월
1	사이프러스	319,814(-42.3)	1,088,341(288.5)
2	헝가리	661,345(81.9)	752,642(37.0)
3	폴란드	382,254(9.5)	709,173(103.8)
4	몰타	272,693(-46.9)	336,872(29.1)
5	슬로바키아	109,758(534.0)	313,105(209.7)
6	체크	157,627(44.8)	273,644(91.2)
7	슬로베니아	71,121(30.9)	70,400(26.2)
8	리투아니아	63,409(59.1)	67,288(1.5)
9	라트비아	25,679(55.2)	37,670(62.3)
10	에스토니아	29,221(42.9)	31,945(32.0)
	총	2,092,921(2.7)	3,681,080(98.5)

(자료원 : KITA)

□ 중.동구권 국가들의 EU가입에 대한 기대 수출에 반영

- 대 폴란드 수출은 작년 부진에서 벗어나, EU가입 효과에 대한 기대로 대폭 급증
  - 작년 대 폴란드 수출증가율 9.5%에 그쳐, 올해는 100% 이상의 증가율 기록할 전망

○ 반면 대 헝가리 수출은 1-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1월까지 수출증가율이 최고 71%에서 37%로 둔화

- 대 체크 수출은 2003년 44.8%, 2004년 1-11월까지 91.2% 증가

□ 우리나라의 EU신규회원국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

○ 폴란드, 체크 및 슬로베니아 수입시장 점유율 꾸준히 확대

- 대 EU신규회원국 수출 급증과 함께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확대

- 우리나라의 폴란드 수입시장점유율은 올해(1-8월 기준) 3.2%, 체크 및 슬로베니아 수입시장점유율은 2.7%로 각각 0.1% 포인트 증가

○ 특히 슬로바키아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2년부터 급속도로 확대

- 2002년 1.1%, 2003년 3.3%, 2004년 (1-8월) 5.0% 점유

[우리나라의 신규회원국 역외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

국가	2002	2003	2004(1-8)
폴란드	3.4	3.1	3.2
체크	2.8	2.6	2.7
헝가리	4.3	5.7	5.4
슬로바키아	1.1	3.3	5.0
슬로베니아	2.6	2.7	2.8
에스토니아	2.3	2.8	2.7
라트비아	0.9	1.4	1.4
리투아니아	2.4	2.5	1.9

몰타	2.1	2.8	2.7 <sup>*)</sup>
사이프러스	1.7	1.9	1.8 <sup>*)</sup>

(자료원 : EUROSTAT) 주) 몰타 통계 2004년 1-4월 기준

사이프러스 통계 2004년 1-6월 기준

## □ 대 폴란드.헝가리.체코 주요 수출 급증품목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자동차부품이 대종을 이룸
  - 대 폴란드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총 수출의 57% 이상 차지
  - 대 헝가리 수출 중 전기전자제품이 70% 이상 차지
  - 대 체코 수출 중 전기전자제품이 53%, 자동차 32% 차지
  
-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서 100%이상의 증가율 시현
  -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1993~2003년 10년간 연평균 15%씩 증가하면서 대 신규회원국에 대한 수출을 주도
  
- 금년 1-11월중 대 폴란드 수출급증 품목은 영상기기(283.6%), 무선통신기기(218.6%), 컴퓨터(142.0%), 대 헝가리 수출급증 품목은 무선통신기기(224.3%), 영상기기(155.4%), 기구부품(239.2%), 대 체코 수출 급증품목은 컴퓨터(470.9%), 무선통신기기(193.3%), 영상기기(368.7%), 유선통신기기(2,299.0%) 등

### [대 주요 신규회원국별 수출급증 품목 현황]

(단위 : 천불, %)

	품목	2003		2004(1-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폴란드	영상기기	78,542	1.6	268,505	283.6
	무선통신기기	28,291	-21.5	78,395	218.6
	자동차	34,352	131.1	81,207	149.8

체크	컴퓨터	12,260	-27.2	52,678	470.9
	영상기기	6,228	12.7	28,209	368.7
	무선통신기기	17,930	675.6	42,143	193.3
	유선통신기기	434	64.8	9,015	2,299.0
헝가리	영상기기	63,583	3.3	146,021	155.4
	무선통신기기	129,906	164.8	229,450	224.3

(자료원 : KITA.net)

□ 전체 수출에서 우리 주력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등 각종 가전전자제품이 대 EU 신규회원국 수출의 70%이상을 차지
-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수출품목이 편중되어 있는 바, 최근 유럽시장의 흐름과 소비자 취향변화에 부응하는 틈새상품 개발을 통해 수출 상품의 다양화 노력 필요

## VI. 한-EU 무역환경 변화 대응방안

### 가. 한-EU 무역에의 영향

#### [긍정적 영향]

#### □ 중.동구 국가의 관세율 인하 및 쿼터 폐지로 수출 증가

- EU 수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어 EU공동통상정책에 따라 쿼터제도 폐지함에 따라 대 중.동구 수출 증가
-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의 수출증대
  - 헝가리의 경우 승용차(1500cc이하) 관세율 13% → 3.9%, 승용차(1600-2000cc) 23% → 6.9%, 자동차부품 6-10% → 3-3.5%, 트럭 25% → 0%, 비디오 및 오디오 10% → 0%로 인하

#### [대 주요 신규회원국별 수출급증 품목 현황]

(단위 : 천불, %)

	품목	2003		2004(1-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폴란드	영상기기	78,542	1.6	268,505	283.6
	무선통신기기	28,291	-21.5	78,395	218.6
	자동차	34,352	131.1	81,207	149.8
체크	컴퓨터	12,260	-27.2	52,678	470.9
	영상기기	6,228	12.7	28,209	368.7
	무선통신기기	17,930	675.6	42,143	193.3
	유선통신기기	434	64.8	9,015	2,299.0
헝가리	영상기기	63,583	3.3	146,021	155.4
	무선통신기기	129,906	164.8	229,450	224.3

(자료원 : KITA.net)

□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

- EU확대로 인한 GDP 추가 성장율이 국별로 매년 1.3-2.1%에 달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전망
  - 신규회원국 평균 GDP 성장률 4% 추정, 특히 발틱 3개국은 앞으로 2년간 6%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EU 수준으로 투자 환경개선 → EU 시장 접근 더욱 용이해져

- 헝가리의 경우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중심인바, 발달된 사회 간 접자본, 금융시스템 등으로 인근 EU 국가에 대한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기회가 매우 큼
-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도 중부 유럽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숙련 노동력을 바탕으로 EU의 제조업기지화가 될 전망, 우리의 대 중.동구 시장진출은 물론 대 EU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전략수립에 적극적인 활용 시급

□ 제품규격 통일로 규격인증 비용 절감

- EU 공통 규격인증인 CE 마크 외에 현재 국별로 적용하고 있는 각종 인증제도가 EU규격인증으로 통일됨으로써 개별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절감

[부정적 영향]

□ 각종 규제로 한국산 전자제품 및 철강제품 타격 입을 소지

- 각종 환경규제, 반덤핑 규제, 원산지 규정 강화 등으로 한국산 전자제품 및 철강제품 타격 입을 소지

□ EU의 자급자족 체제의 심화에 따른 역외무역비중 감소

- EU의 중.동구 현지투자에 의한 분업체제의 강화로 확대된 떠는 자급자족 체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EUROSTAT 통계를 분석한 결과, EU 확대 후 역외무역비중이 감소하긴 했으나,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대 신규회원국 수출은 작년대비 크기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 수입시장점유율도 확대해나가고 있음.

[EU 확대 후 주요 신규회원국 역외무역 비중 변화]

(단위 : %)

국가	2003	2004(1-7)
폴란드	25.7%	23.1%
헝가리	28.3%	19.3%
체크	21.3%	19.4%

(자료원 : EUROSTAT)

□ 신규회원국 수입시장에서 중.일과의 경쟁 치열

- 우리나라의 신규회원국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신규회원국 수입시장 점유율 또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품목다변화 및 고유 브랜드 육성, 틈새 상품 개발로 신규시장 공략해야

□ 원산지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예상

- EU가 '97년 1월에 도입한 범유럽 누적 원산지 지역에 따르면 동지역에 속하는 국가(29개국)에 관세혜택을 받고 수출후가 위해서는 최소한 제품가치의 60%가 동 지역에서 창출되어야 함

□ 투자 인센티브 축소

- 중.동구 국가들이 EU 가입과 함께 기존의 관세자유지역 내에 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철폐 또는 축소

## 나. 대응방안

□ 생산기지 확보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 중.동구로 신규진출하거나 유럽 내 생산라인을 동구로 이전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갖춘 분업체제 구축, EU 원산지 규정에 따른 EU 역내 관세혜택 수혜

-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 가치의 60%이상이 역내에서 창출되어야 함.

- 하청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현지 자립체제 구축 필요

□ 중소기업 전용공단 및 물류센터 조성

- 확대된 EU경제권의 자금자족 체제 심화에 대비하고, 유럽기업들의 중.동구 현지투자를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에 적극 대응

- 현재 헝가리가 물류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서유럽기업들의 물류기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쟁체제 심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물품 인도 기간 단축을 통한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류센터 조성

#### □ 대형 유통점을 통한 진출 확대

- 대형유통점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제품판매에 있어 효과적인 접근 필요(전산업 구가가치 창출액의 약 15%)
- 이를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 소비자 동향 파악 등을 통한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개발의 선행 필요

#### □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수출 확대할 필요

- EU확대를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EU 수출기반을 늘리는 계기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의 EU수입시장 점유율은 2.35%(2003년기준)로 미국(15.5%), 일본(6.7%), 중국(9.7%)에 크게 뒤짐

#### □ EU와의 FTA 및 상호인증협정(MRA) 체결 추진 필요

- 지역주의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
  - FTA를 통한 경제통합과 분업 등으로 경제효율성이 제고되고 지역주의에 대한 협상력 제고
  - 한-EU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필요

○ EU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비, 신규 가입 가능 국가에 대한 시장  
선점 노력 강화 필요

- 불가리아, 루마니아 : 2007년 가입예정국
- 터키, 크로아티아 : 2005년부터 EU 가입 협상 개시